

## 보도자료



(주소) 16488 /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 178 (전화) 031-231-8574 (팩스) 031-231-8588

| 배 포 일   | 2025.9.22 | 쪽수 | 사진 | 기관 도메인주소     | 자료 문의                                       |
|---|-----------|----|----|--------------|---|
| 보 도 일   | 배포즉시      |    |    |              |   |
| 정조의 길 위에서 환경을<br>생각하다 - '경기옛길 더하기,<br>환경' 4회차 행사 성료 |           | 1  | 2  | www.ggcf.kr/ | 부서 : 문화유산팀<br>담당 : 이소정<br>전화 : 031-231-8574 |

## 정조의 길 위에서 환경을 생각하다 - '경기옛길 더하기, 환경' 4회차 행사 성료

- ▶ 삼남길 화성효행길 따라 도보탐방과 환경 정화 활동
- ▶ 가족 단위 참여로 의미 더해...용주사 해설부터 옛길따라 자연탐방까지
- ▶ "걸으며 배우고, 함께 실천하는 지속 가능한 프로그램"

경기문화재단 경기역사문화유산원이 운영하는 시민참여형 친환경 도보 프로그램 '경기옛길 더하기, 환경' 4회차 행사가 지난 9월 20일(토), 화성시 용주사 일대에서 열렸다. 이번 행사에는 동호회 '즐거운 만남' 12명의 참가자들이 가족 단위로 함께 참여해, 삼남길 제6길 화성효행길 구간 일부를 걸으며 유구한 역사와 자연을 체험하고, 도보 길 주변의 쓰레기를 수거하는 환경 정화 활동을 진행했다.

'경기옛길 더하기, 환경'은 걷기를 통해 역사와 문화를 체험하고, 환경 보호 활동까지 함께할 수 있도록 기획된 실천형 프로그램이다. 이번 4회차에서는 정조대왕의 효심이 깃든 용주사에서 출발하여 뱅치저수지, 배양교까지 이어지는 코스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용주사 문화해설사의 설명을 들으며 정조와 사도세자의 이야기를 접했고, 황구지천변의 들판과 저수지를 지나며 자연 속에서 쓰레기를 줍는 활동에 적극 참여했다. 특히 가족들이 함께 봉투를 들고 쓰레기를 줍는 모습은 행사에 훈훈한 분위기를 더했다.

'화성효행길'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이날 행사에는 가족들이 함께 참여해 역사와 환경을 배우는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한 참가자는 "아이와 함께 정조의 효심이 깃든 길을 걸으며 환경까지 생각할 수 있어 더의미 있었다"며 "가족 모두에게 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다"고 말했다.

본 프로그램은 총 5회차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음 5회차 행사는 오는 10월 25일 토요일 김포(강화길)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문화유산팀 관계자는 "가족 단위의 참여로 이루어진 이번 행사는 효심의 길 위에서세대 간 소통과 공동의 실천이 함께 이루어진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도민들이 함께 걷고, 배우고, 지키며 삶의 가치를 되새길 수 있는 지속 가능한 프로그램으로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경기옛길은 조선 시대 실제 사용되던 옛 도로를 역사적 고증과 현대적 재해석을 통해 조성된 도보 탐방로로, 경기도의 역사문화자원을 가까이에서 체험할 수 있는 길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이번 행사가 열린삼남길 제6길 화성효행길은 정조대왕이 아버지 사도세자를 참배하기 위해 걸었던 길로, 효의 의미를 되새기기에 더없이 적합한 구간이다. 황구지천변의 고즈넉한 풍경과 용주사의 역사적 배경이 어우러진 이길은, 가벼운 난이도로 누구나 쉽게 걸을 수 있어 가족 단위 방문객에게도 안성맞춤이다. 경기문화재단

은 앞으로도 다양한 시민 참여 프로그램을 통해 경기옛길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보다 많은 도민이 일상 속에서 걷기의 즐거움과 역사 체험을 함께할 수 있도록 운영을 이어갈 계획이다.

[붙임. 현장 사진]



